전남광주 다문화 출생아 5년새 20% '뚝'…결혼도 줄어

국가데이터처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

광주 22.5%·전남 17.4% 큰 폭 감소

혼인 전년比 광주 5.4%↓·전남 동일

베트남·중국 출신 여성 혼인 감소 여파

다문화 다자녀 출산 비중도 하락 흐름

전남광주지역 다문화 출생아 수가 최근 5년 사이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과 달리 다문화 출생아는 줄어들면서 지역 다문화가족의 출산 규모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광주지역 다문화 출생아 수는 79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858명보다 59명(6.9%) 감소한 수치다. 2021년 991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 192명(19.4%) 줄었다.

권역별로는 광주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광주 다문화 출생아 수는 2021년 377명에서 2022년 314명으로 줄었다. 2023년에는 323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2024년 299명으로 다시 감소하며 300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92명까지 떨어졌다. 2021년과 비교하면 85명(22.5%) 감소했다.

농어촌 지역 비중이 높은 전남 역시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전남의 다문화 출생아 수는 2021년 614명, 2022년 538명, 2023년 492명으로 3년 연속 줄었다. 2024년에는 559명으로 일시적인 반등을 보였으나 지난해 다시 507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보다 107명(17.4%) 줄어들었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광주가 2024년 447건에서 지난해 423건으로 5.4% 줄었다. 전남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766건으로 변동이 없었다.

전국적으로도 다문화 출생아 감소세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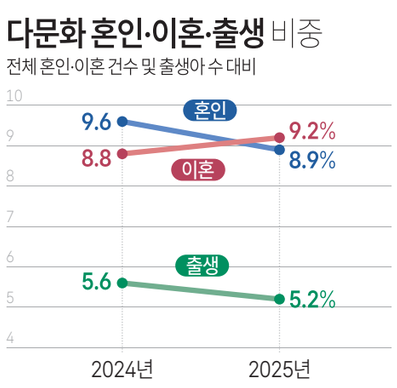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천347명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반면 전체 출생아 수는 2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출산 순위별로는 첫째아가 60.2%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아 27.0%, 셋째아 이상 12.9% 순이었다. 다문화 출생아 가운데 첫째아와 둘째아 비중은 전체 출생아 기준 한국인 부모의 비중보다 각각 2.4%포인트, 4.5%포인트 낮았다. 반면 셋째아 이상 비중은 6.9%포인트 높아 다문화가족의 다자녀 출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셋째아 이상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다. 2023년 13.8%에서 2024년 13.7%, 지난해 12.9%로 낮아졌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한국인 부모보다 셋째아 이상을 낳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면서도 "출산 기여도가 높은 다문화 모(母)의 국적이 베트남과 중국인데, 이들 국가 출신 여성과의 결혼이 줄어들면서 다문화 출생에서도 셋째아 이상 비중이 과거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수능일, 주식시장 1시간 늦게 개장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9일 국내 증시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국거래소는 수능 당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정규시장 거래 시작과 종료 시점을 1시간씩 늦추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정규 거래시간이 수능 당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바뀐다.

애프터마켓 개장 시간은 기존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로 늦어진다. 마감 시간은 오후 8시 그대로다.

정규시장 개시 전 시간 외 시장도 거래시간이 1시간씩 순연된다.

/연합뉴스



㈜해양에너지가 지난 4일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 해양에너지 안전골든벨'을 개최했다. 〈해양에너지 제공〉

해양에너지, 임직원 참여 '안전골든벨' 개최

㈜해양에너지가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 지식 경연 행사를 열었다.

5일 ㈜해양에너지에 따르면 전날 본사 안전관 3층 대강당에서 전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6 해양에너지 안전골든벨'을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지식을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퀴즈는 도시가스사업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내 안전규정 등 현장 업무와 밀접한 안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됐다.

행사는 1차 O/X 퀴즈 예선과 2차 객관식·주관식 본선으로 나눠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안전모와 형광 안전조끼를 착용한 채 문제를 풀며 안전수칙과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정희 대표이사는 "이번 안전골든벨은 임직원들이 도시가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전사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aT, 한국 전통주 유럽시장 공략 본격화

독일 REWE 매장 정식 입점 판매

백경 15 블랙·솔송주·담솔 등 9종

현지 취향·수요 반영 유통망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0월23일 독일 니더작센주 윌첸의 대형 유통매장 REWE(레베)에서 'K-Fermentation 전통주 워크숍'을 개최하고 오미로제연, 왕주, 등 전통주 12종을 선보였다. 〈aT 제공〉

한국 전통주 9종이 독일 대형 식품유통매장에 정식 입점해 현지 소비자들과 만난다. 시음과 체험 행사에서 나아가 실제 유통망 진입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전통주의 유럽시장 진출에 새로운 발판이 마련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5일 "지난 10월23일 독일 니더작센주 윌첸의 대형 유통매장 REWE(레베)에서 'K-Fermentation 전통주 워크숍'을 개최하고, 행사에서 소개한 전통주 12종 가운데 9종이 해당 매장에 정식 입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전통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현지 소비자와 주류업계 관계자에게 알리고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독일 전역에 3천8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대형 식품유통기업 REWE와 협력해 현지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대형 유통망을 통한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행사에서는 오미로제연, 왕주, 송이주, 우렁이쌀청주, 이강주 등 한국 각 지역의 양조 전통과 특색을 담은 전통주 12종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에게 한국 전통주의 역사와 발효문화, 전통 양조 방식 등을 소개하고 제품별 맛과 향, 음용 방법을 설명했다.

현지 식품·주류 수입업체와 외식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간 거래(B2B) 워크숍에서는 전통주 12종의 제품별 특징과 수입·유통 절차 등을 안내했다. 유통매장 신규 입점과 레스토랑 협업 등 구체적인 사업 기회도 논의하며 유럽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소개한 전통주 가운데 '백경 15 블랙', '솔송주', '담솔' 등 9종이 REWE 행사 매장에 정식 입점해 판매된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음·체험 행사를 실제 매장 입점 성과로 연결했다.

aT는 이번 입점을 계기로 유럽 프리미엄 주류시장에서 한국 전통주의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유통업체 및 외식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태호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